

사망사고 백운산 계곡 댐질 안전조치 ‘불안’

사고 지점에만 안전요원

위험계곡 수십곳 통제 없어

돌 채워넣어 수심 낮추기

자연 훼손 환경단체 반발

광양시가 백운산 계곡 내 고교생 사망사고 이후에도 사고지점 외엔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광양시의 안전·재난 행정을 관리·감독해야할 전남도는 “계곡 내 물놀이 사고를 막겠다”며 수심이 깊은 계곡 구간에 돌을 채워 넣는 등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행정을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7일 백운산 4대 계곡(여치·동곡·성불·금천)을 방문해

본 결과, 지난 9일 고교생 A(18)군이 익사한 동곡계곡 P산장 앞 계곡 1곳에만 안전요원과 인명구조함이 설치돼 있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앞에는 물놀이 금지구역, 사망사고 발생지역을 알리는 안내판까지 세워져 있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 않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또한 사고발생구간에는 6개의 출입금지 통제선이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었지만, 피서객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통제선을 붙잡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안전요원도 이를 지켜만 볼 뿐 통제를 하지 않았다.

광양시로부터 사망지점 근무를 지시 받았다는 안전요원은 “안전한 통제는 할 수 없어, 가장 깊은 구간만 제외하고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안전요원 근무방식을 기존에 순회하는 방식에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며 “안전요원에

게 통제선이 설치된 모든 구간에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층원 없이 특정지점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다 보니 다른 위험 구간에서는 안전요원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지점에서 1.5km 떨어진 담곡계곡에는 안전요원이 없었고, 녹슨 구명장치와 응급시 사용이 불가해 보이는 구명환만 도로가에 비치돼 있었다.

가장 많은 피서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여치계곡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총 길이 22km인 백운산 계곡에는 수심 2m가 넘는 위험 계곡(지점)만 45곳에 이른다. 백운산 계곡에선 최근 4년간 6명이 물놀이를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물놀이 사망사고에 전남도와 광양시는 공동으로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계획중이지만,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이미 올해에만 화순과 해남 등

2곳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 인공적으로 돌을 채워넣은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며 광양은 올해 2곳, 내년엔 6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는 전남도 30%, 자치단체 70% 부담이 원칙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양지역 환경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만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계곡 정비사업은 자연석만을 이용한다 해도 결국 생태계를 훼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계곡 특성상 수심을 낮추기 위해 돌을 날더라도 물에 휩쓸리는 등 해마다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수심이 낮아진 계곡은 집중호우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광양만녹색연합)내부 논의를 통해 반대집회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회용품 안 쓰시죠? 19일 광주시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북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18과 부마항쟁, 민주화 정신 공유하고 현안 공동대응

내일 5·18기록관서 간담회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화정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국 순회 전시 개막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진 현황’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5월 단체와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유족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고호석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부산의 계엄사령부를 방문해 진압작전 계획을 검토·지휘했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두환 5·18 광주방문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과 부마항쟁 모두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며 “양 단체들이 협력해 민주화운동에 관한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조성

5대 아동친화 종합계획 수립

광주시 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동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목표로 생활환경·안전·교육환경·보건복지·놀이권 보장을 위한 도시 공간조성 등 5대 분야별 ‘동구형 아동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아이들이 뛰어 놀기 좋은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권역별 확대 운영’ 등 5대 영역 20개 아동친화도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동구는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단지와의 협약을 맺어 놀이터·보행환경 등 어린이친화 거주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 보육공간을 만들고 입주인이 돌아가며 어린이를 돌보는 품앗이 방식 ‘공동육아나눔터’도 조성한다.

이날 구청 3층 상황실에서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 실·과장이 참석해 아동행복센터(가칭) 건립 등 어린이놀이권 보장을 위한 공간조성을 주제로 협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4차산업시대를 맞아 직접 스마트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코딩 교육, 충분한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한 공동체 정신 공유, 건강을 식민들이 체험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해진

05:55
19:16

달뜨
달짐

21:57
09:51

곳곳에 비소식

차차흐려져 동부 남해안 일부지역에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은뒤 흐림	23/32	보성	맑은뒤 흐림	21/30
목포	맑은뒤 흐림	24/31	순천	차차흐려져비	23/32
여수	차차흐려져비	24/29	영광	맑은뒤 흐림	21/32
나주	맑은뒤 흐림	21/32	진도	맑은뒤 흐림	22/32
완도	맑은뒤 흐림	23/30	전주	맑은뒤 흐림	22/33
구례	맑은뒤 흐림	21/32	군산	차차흐려져비	22/32
강진	맑은뒤 흐림	22/31	남원	맑은뒤 흐림	21/33
해남	맑은뒤 흐림	21/32	흑산도	맑은뒤 흐림	23/28
장성	맑은뒤 흐림	21/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북동~동	1.0~1.5	동~남동	1.0~2.0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10 22:18	04:58 17:12
여수	05:29 17:32	11:39 23:53

◇주간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4/30	24/31	23/32	23/31	23/31	23/31	23/31

남구 지역산업 진흥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남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지역산업진흥 평가’에서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끈 공로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남구는 지역 혁신성장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인 에너지 밸리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도시첨단 산업단지에는 한국전 기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과 에너지 분야 대기업인 (주)LS산전이 들어설 예정이며, 에너지밸리에는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 53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내달 6일까지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는 “다음달 6일까지 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나를 찾는 인문학당’, ‘우리를 알기에는 시민학당’,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예술학당’, ‘내일을 준비하는 다모작 학당’, ‘마을 보물을 찾는 서구학당’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소셜로 읽는 일제식민의 역사, 예술로 만나는 5·18, 연필로 그리는 서구의 공원, 스마트한 삶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등 역사부터 인문학, 예술을 망라한 2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동 대원 빌딩 **층별**

“ 특별분양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추천 업종 ”

1

높은 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2

볼링장,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